

2023년도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요 약

- 연수기간: 2023. 3. 13.(월) ~ 3. 18.(토) ▶ 4박 6일
- 연수국가: 호주(시드니)
- 연수대상: 11명(의원6, 직원5)
- 연수내용: 해양시설, 도시기반시설, 신도시 개발 현장 등
비교·시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Gangseo-Gu Council, Busan Metropolitan City

목 차

I. 연수개요	2
○ 연수기간	2
○ 연수국가	2
○ 연수대상	2
○ 연수일정	3
II. 연수목적	4
○ 연수목적	4
III. 연수내용	4
○ 연수내용	4
IV. 연수국가 및 주요 방문지 현황	5
○ 호주 및 주요 방문지	5
V. 중점분야별 결과보고	9
○ 신도시 개발	9
○ 도시재생 환경	18
○ 해양 시설	27
○ 도시기반 시설	39
○ 문화관광 시설	52
VI. 기관방문	61
○ 한인회관 방문	61
VII. 연수후기	67

I

연 수 개 요

연수기간: 2023. 3. 13.(월) ~ 3. 18.(토) ▶ 4박 6일

연수국가: 호주(시드니)

연수대상: 11명(의원6, 직원5)

연번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1	의장	박병률	남	
2	부의장	김주홍	남	
3	의원	박혜자	여	
4	의원	이자연	여	
5	의원	김정용	남	
6	의원	구정란	여	
7	의사계장	고병철	남	
8	주무관	임훈섭	남	
9	주무관	전주영	여	
10	주무관	배선인	남	
11	주무관	정현정	여	





연수일정

일 자	지 역	시 간	방 문 기 관	업 무 내 용
3.13.(월)	부산 인천	13:30 16:35		- 항공편 이동
3. 14.(화)	시드니	09:20 14:00 16:00 17:00	더들리페이지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릿지 서큘라퀘이 센트럴시티역 올림픽 파크	- 도심공원화 정책의 이해 - 해양 자원을 활용한 우수 관광 자원 현장 견학 - 대중교통 우수정책 현장 견학 - 신재생 에너지 및 쓰레기 매립지 현장 시찰
3.15.(수)	포스 테스판	10:30 14:00	포스테스판 넬슨베이 항만청	- 항만도시, 해양자원에 대한 이해 - 항만의 지역사회 기여도, 친환경 클린에너지 현황 파악
3.16.(목)	블루 마운틴 시드니	11:20 16:00	블루마운틴 블랙타운 개발현장	- 자연 친화적 생태관광상품에 대한 이해 - 신도시 개발 이해
3.17.(금)	시드니	09:00 11:30 13:40	한인회 달링하버 미시즈매쿼리 포인트 왕립 식물원	- 호주의 현황 및 교민 생활을 통한 복지 및 지원 제도 등 이해 - 항만 재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지역특성화 사업 이해 - 도심공원화 정책의 이해
3.18.(토)	시드니 인천 부산	09:00 18:50 19:50		- 항공편 이동

Ⅱ

연 수 목 적

-  선진지 국가의 해양시설, 도시기반시설, 신도시 개발 현장 등을 비교·시찰하여 우수사례를 구정에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  국제화 능력배양과 선진시책 습득으로 견문을 확대하여 의회 역량 강화
 - 달링하버,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릿지 등 성공적인 해양사업을 분석하여 항만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도 파악
 - 센트럴시티역, 왕립식물원, 더들리페이지 등 해외 우수 교통정책, 도심공원화 정책을 분석·연구하여 도시기반 및 문화관광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대책 마련
 - 블랙타운 개발 현장, 시드니 올림픽파크 등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 신도시 개발, 신재생 에너지, 쓰레기 매립지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우리구 접목 방안 모색 및 해당 정책 수립

Ⅲ

연 수 내 용

1. 신도시 개발

-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신도시 기반시설의 정비·개발사업 등 현장 방문을 통해 관련 자료 수집

2. 도시재생 환경

- 도시 환경·경제 개선을 위한 노후 산업단지, 항만 등 핵심 시설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복합 정비·개발 함으로써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 환경 개선 및 지역 특색 발굴 자료 수집

3. 해양시설

- 방문을 통해 해양사업, 항구개발, 해양자원 활용 및 친수시설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

4. 도시기반 시설

- 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과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진기초시설 관련 자료 수집

5. 문화관광 시설

- 공원 및 관광시설 방문을 통해 도심공원화 정책 및 지역특성화 사업 관련 자료 수집

IV 연수국가 및 주요 방문지 현황

연수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공식명칭은 Commonwealth of Australia 이며 6개 주와 2개의 자치령으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남북으로 3,180km, 동서로는 4,000km로 지구상 가장 작은 대륙이자 6번째로 큰 나라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한때 백호주의정책을 유지해 오면서 이를 폐지한 이후 이민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아시아계 이민이 급증하여 투자이민을 제한하고 기술이민을 촉진하였다. 그리고 매년 경제상황에 종합하여 이민자수를 결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봉쇄조치 여파로 인력난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2년 연간 이민자수를 16만명에서 19만5000명으로 늘렸으며, 이는 호주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 되어 근대적 복지국가의 기준이 되었으며 산업수당제도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 하고 있다.

호주 대륙은 오랫동안 다른 대륙과 분리되어 있어 여타 대륙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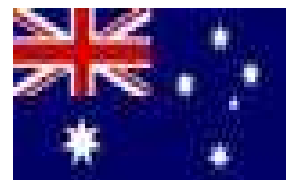
볼 수 없는 특이한 동·식물군을 볼 수 있으며, 오염되지 않은 나라로서 캥거루, 코알라 등 많은 동물이 살고 있어 동물과 자연, 인간이 함께 삶을 영위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호주가 특이한 점은 적도 아래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와 기후가 반대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덕분에 우리의 겨울엔 여름여행이, 여름엔 겨울여행이 가능해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호스트레일리아는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광물, 금속 생산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보크사이트, 갈탄, 석탄, 광물질 모래, 금, 납, 아연, 철, 구리, 니켈 등 광물과 육류 등 1차 산품이 주요 수출품이다. 세계 제2의 철광석 수출국으로 연간 약 1억톤의 철광석을 생산하여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

한국과는 1961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동반자로서, 2021년 수교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다. 우리와의 관계는 무역 협정, 문화협정 등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협력협정을 체결하고, 1920년 이후 이주를 시작으로, 현재 약12만명에 달하는 교민을 위해 K-culture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호스트레일리아)]

국 명:	호주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Australia))
수 도:	캔버라(Canberra)
면 적:	768만km ² (한반도의 약 35배)
인 구:	약2,564만 ※ 인구 약36만
민 족:	영국계(80%), 기타 유럽 및 아시아계(17.3%), 원주민(1.7%)
언 어:	영어
종 교:	기독교 67%, 무교 26%, 기타(불교, 이슬람교 등) 7%



주요 방문지 현황

센트럴 시티역



호주 시드니의 중심부에 위치한 대형 철도역으로, 호주 최대 철도역 중 하나다. 이 역은 1855년에 개장되어 이후 지속적인 확장과 개조가 이루어졌다. 시드니 센트럴 시티역은 호주 동부 지역의 주요 도시와 연결되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뉴사우스웨일스 주 내외의 지역을 연결하는 기차 노선과,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이어져 있다. 또한 시드니 국제공항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매우 편리한 위치에 있다. 시드니 센트럴 시티역은 기차역, 지하철역, 버스 터미널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상점, 레스토랑, 카페 등의 다양한 상업시설도 제공하고 있다. 역 주변에는 유명한 관광지인 청각장, 동물원, 박물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시드니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에게는 중요한 지역 중 하나다.

시드니 왕립 박물관



이국적인 분위기의 다양한 식물로 꾸며진 거대한 규모의 식물원으로 도시환경과 조화롭게 잘 운영되고 있으며 호주의 자생식물에 대한 보전과 적절한 이용보급을 위한 노력을 엿 볼 수 있었다. 특히 식물 개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같은 식물 성장 과정에 대한 연구과정을 통해 호주의 자연식생 및 외래종 관리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공원 및 청계천 등 공단의 사업장에도 분포하고 생장 가능한 자연식생에 대해 체계적이고 치밀한 관리 중이며 첨단 도시기능을 갖춘 스마트시티다.

시드니 올림픽파크



시드니 올림픽 공원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 홈부쉬 지역에 640 헥타르 면적으로 조성된 스포츠 공원으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개최를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시드니 올림픽 이후에도 스포츠 경기나 시드니 로열 이스터 쇼, 시드니 페스티벌, 빅 데이 아웃과 같은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가장 환경이 나빠 버림받은 땅에서 환경올림픽을 구현해보려 한 것이다. 조직위원회는 1억3700만 호주달러나 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홈부시베이에 묻혀 있던 쓰레기를 걷어내고 그 위에 잔디와 나무를 심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까지 마련해 완벽한 올림픽경기장으로 꾸몄다.

하버 브릿지



싱글아치(single arch)형 다리중에서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긴 다리로 시드니항의 상징이다. 해면에서 도로까지의 높이가 약 59m인 이 대형 다리는 마치 옷걸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낡은 옷걸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다. 다리의 전체 길이는 1,149m로 뉴욕의 베이론 다리 보다 약 60cm짧다.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파이론 내부를 통해 다리위로 올라 갈 수 있으며, 인도도 있어 북쪽으로 걸어갈 수 있다. 호주 건국 2백주년이던 1988년에 다리의 외곽에 녹색의 조명등을 설치하여 밤이 되면 더욱 화려한 빛을 발하고 있다.

오페라하우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이며, 시드니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1973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2세에 의해 정식 개관하였다. 1957년 국제 설계 공모전에서 우승한 조른 우트존이 오렌지 껍질을 벗기던 도중에 떠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분적으로 원형의 모양인 바깥 표면은 자주 그곳을 향하는 범선의 소함대를 떠올리게 한다. 200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선정 되었다.

블랙타운



시드니 시티에서 약 35km 떨어져 있고 북쪽의 Hawkesbury City, 북동쪽의 Hills Shire, 동쪽의 Parramatta 시, 남동쪽의 Cumberland Council 지역, 남쪽의 Fairfield City 및 서쪽의 Penrith City를 경계로 한다. 교통 또한 편리해서 기차역, 버스 인터체인지, 버스전용도로, 자동차 및 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36년에 인구 50만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Blacktown의 성장에 대응하고 고품질 서비스 제공의 기반 마련을 하기 위한 Blacktown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넬슨 항만



넬슨 항만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시끄러운 저주파 발생기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항구 커뮤니티 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지난 12개월 동안 Port Nelson은 여러 배송 서비스를 증가시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최고 경영자는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선박의 소음 수준을 줄이는 것이 Port Nelson의 우선 순위며, 주요 소음원은 선박을 오가는 컨테이너의 딸깍거리는 소리로, 해운선과 협력하여 소음 완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Port Nelson은 Maersk Nansha의 소음 영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1. 신도시 개발(김주홍 부의장)

① 블랙타운시티(Blacktown City)

1) 현장개요 및 방문 배경

- 우리 강서구는 하천과 해안을 접하고 있는 아름다운 수변 도시로 공항, 항만, 철도 등 입체적으로 연결된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와 환경이 비슷하고 신도시 개발 성공 모델인 호주 블랙타운 시티를 방문 체험하여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블랙타운(Blacktown)이라는 지명은 과거 이 지역에 원주민 학교가 있던 거리를 ‘더 블랙스 로드’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다. 이곳에 유럽인이 본격 정착한 시기는 1791년경으로 주로 농업과 목축업이 주로 이루어졌다. 1860년대 이후 철도 건설과 토지 분할 활동에 힘입어 지역이 성장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히 인구가 증가했고 1981년 18만 1000명, 2011년 30만 명, 현재 40만 명을 기록하며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Blacktown City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활기차고 역동적이며 다문화적인 도시로 발전하였으며, 2036년에는 인구 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수집자료

- 성장과 변화에 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블랙타운시티(Blacktown city) 발전 프로젝트
 - Blacktown International Sports park
크리켓, 야구, 소프트볼, 육상, 축구 등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최첨단 멀티 스포츠 경기장 조성
 - Blacktown Exercise Sports and Technology Hub
전문 스포츠인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
 - A university for Blacktown
대학 캠퍼스 신축. 수천 명의 학생들이 Blacktown City에 있는 새로운 대학 캠퍼스 이용
 - Health precinct
NSW 주정부 및 사설 보건 기관과 협력하여 Blacktown CBD에 인접한 개인병원 시설 및 연합 의료 서비스 제공
 - Blacktown Brain and Spinal Institute (BSI)
의학 연구, 실습, 치료 및 회복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
국내 및 국제 외과의사는 BBSI에서 연구 수행 및 치료
 - Riverstone Town Centre Masterplan
향후 20년 동안 지속적인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이고, Blacktown Local Environment Plan에 따라 토지의 용도를 분리하고 건물 높이를 변경할 예정
 - Animal Rehoming Centre
유기 동물 보호 센터를 Glendenning에 10.5 헥타르의 규모로 신축. 매년 최대 10,000마리의 동물들을 보호



블랙타운 인터내셔널 스포츠파크



블랙타운 스포츠 및 기술 허브



블랙타운 뇌 및 척추 연구소



리버스톤 타운센터 마스터플랜

3) 시사점 및 우리구 접목방안

- 넓은 평지와 해안변, 강변을 끼고 있는 강서구는 여러모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자연 및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다. 물론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인구로 양질의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부산시에서 평균 39.4세의 가장 젊은 자치구로 교통체계를 개편하여 교통을 더욱 원활하게 한다면 타 지역보다 스포츠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부산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할 것이다.

블랙타운시티 스포츠파크 및 기술 허브를 모델로 하여 국민체육센터와 야구장, 축구장, 그리고 파크골프장 시설 등을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연계하여 하나의 강서구 스포츠파크를 조성하고, 전문 스포츠인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급의 대형병원을 유치하고 보건소의 기능을 확대하여 협약한다면 향후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스포츠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호주 직장인들의 일반적인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오전 7시에서 오후 4시’,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특이한 점은 점심시간을 1시간이 아닌 30분만 사용할 때는 근무시간이 1시간이 줄어들어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8시간 근무를 보장한다. 그리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는 최대한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다 좀 더 탄력적인 근무시간과 재택근무로 인해 출퇴근 시간에 중심가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강서구도 도로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교통체증 개선을 위해 녹산공단의 여러 기업과 협업하여 근무시간을 더욱 탄력적으로 개선하고, 정책적으로 가능하다면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구포대교 및 신호대교 등 낙동강 주요 횡단 대교의 출퇴근 교통체증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4) 주요 질의응답

○ 인구증가 및 도시화에 따른 교통 및 주차문제

- 통합교통관리계획(ITMP)을 2013년에 채택하였고, 향후 수십 년 동안 블랙타운 시티 교통시스템의 개발을 이끌고, Blacktown City 안팎의 성장에 대응하여 운송 네트워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2036년까지 약 50만명의 인구와 18만호의 주택으로 예상되는데 도로 인프라가 개선되는 동안 자동차 사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걷기, 자전거 타기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통합교통관리계획(ITMP)은 대도시 전략 및 북서부 소지역 전략을 포함한 주 정부 정책의 검토를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다른 지역 전략 사업, 특히 주거 및 고용 토지 개발과 관련된 사업도 고려하였다.

- Tallawong 역에서 공원 및 웨스턴 시드니 공항까지 시드니 메트로를 확장하는 등 교통 인프라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고, 블랙타운 로드와 세븐힐스 등 연결을 더욱 원활히 하고, 북쪽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등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또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유료 주차로 회전율을 높이고, 노상에 주차를 유료로 허용하는 계획이 있다. 주차장이 부족한 중심지역에서 카셰어링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연료비와 혼잡도를 생각할 때 경제적이고 상대적으로 빠른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내 중심가 등 핵심 명소에

자전거 주차시설을 제공하고 자전거 등을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시의회 정책에 따라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차량공유(RideShare)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블랙타운시티 교통시설



광역교통계획



블랙타운시티 중심가 현장방문

○ 시드니의 스포츠 중심도시

- 블랙타운 시티는 서부 시드니의 스포츠 수도로 인정받고 있다.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스포츠 문화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사업이다.

블랙타운 인터내셔널 스포츠파크는 크리켓, 야구, 소프트볼,

육상, 호주 축구 등을 통해 엘리트 및 지역 사회 스포츠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및 국제 스포츠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는 멀티 스포츠 경기장을 제공한다. 시설에는 공공 광장, 호텔, 선수 호스텔, 식음료 시설, 교통 시설이 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스포츠파크를 개선하기 위해 우수한 교육 센터를 개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교육, 건강, 스포츠 의학 등 지역 사회를 위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2036년까지 시의회는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을 통해 양질의 훈련 및 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고 전문가 및 일반 대중에게 널리 이용될 수 있는 시설로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 사례

- 사회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탕 색상을 응용한 쓰레기 수거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우울증, 쓰레기 감소, 가정 폭력 등과 같은 지역사회 문제를 홍보하기 위해 광고판을 차량에 추가하였다.

자칫 도심 속에서 위협적일 수 있는 트럭을 사탕 색상을 입히고 사회적 인식 변화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지역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라며, 비록 도로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지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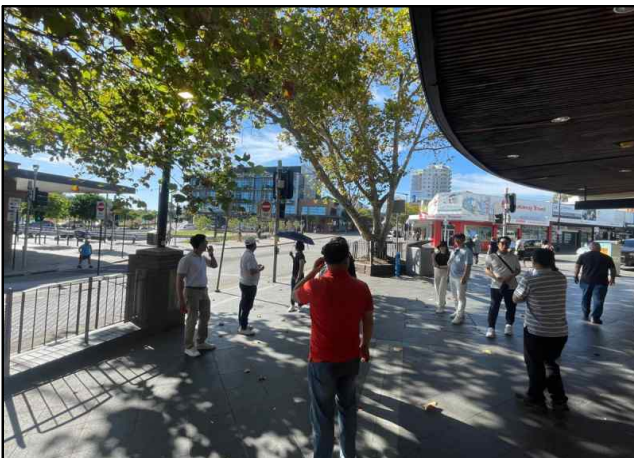
사탕 색상의 쓰레기 수거차량

5) 결과 분석

- 호주의 경우 광활한 국토를 소유하고 있어 신도시 조성의 개념이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본다. 블랙타운의 경우 시드니의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에 따라 외곽으로 주거지가 팽창하여 신도시가 조성된 것이다. 기존의 낙후된 도시외곽 지역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신도시로 변화되어 자연친화적이고 안락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공공시설과 현대화로 신도시가 탄생한 것이다.
- 하지만 우리의 경우 신도시 조성이 인위적이고 단순히 편리한 도시기능적 측면이 강조되어 조성이 된다. 앞으로 블랙타운에서 본 자연과 조화된 정주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신도시 계획의 패러다임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시드니 및 블랙타운의 스포츠 중심도시 계획을 보면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교육, 운동, 치료, 재활, 연구, 즉 처음부터 끝까지 일원화시켜 이용자가 편리하게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 강서구도 넓게 펼쳐진 양질의 스포츠 관련 시설들을 편리한 교통시스템으로

시설들을 한데 묶고 앞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면 경남권을 아우르는 스포츠의 중심도시가 되리라 확신한다.

- 시드니 정책에 있어 인식에 변화에 대한 노력을 보면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배울 수 있다. 위 사례와 비교해 보면 우리 구의 경우 쓰레기 수거 차량은 현재 획일적인 도색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수거 종류에 따른 차별화된 차량도색을 도입해 한층 밝은 느낌을 주는 것도 좋을 듯하다.



블랙타운 CBD 도로



블랙타운 CBD 광장 및 주차장

6) 참고문헌

- Blacktown City Council homepage
(<https://www.blacktown.nsw.gov.au/Home>)
- Blacktown Council Integrated Transport Plan
- BCC Local Strategic Planning Statement 2020
- Blacktown Parking Management Plan

2. 도시재생환경(박혜자 의원)

① 달링하버

1) 현장 개요 및 방문 배경

- 선박이 출입하고 정박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화물과 여객을 싣고 내리는 시설인 항만 또한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는데,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노후화되거나 역할이 축소된 항만도 재개발을 통해 기능과 역할을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를 ‘항만 재개발 사업’ 이라고 하는데, 노후화하고 침체했던 항만이 재개발 사업을 거쳐 해양관광, 상업 중심지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국제적인 사례가 호주 시드니 달링하버이다.



3단계 개발(1984년~2000년)이 완료된 시드니 달링하버 © Copyright 2020 Destination NSW



4단계 개발(2003~) 이후의 시드니 달링하버 © Copyright 2020 Architecture Media

달링하버란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도 세계적인 랜드마크인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일대가 바로 항만 재개발로 조성된 달링하버항이다.

달링하버는 30km 정도 떨어진 보타니항이 새로 건설되면서 낡고 쇠퇴한 항만시설과 방치된 철도부지 등 60만㎡를 재개발하여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리지와 함께 시드니를 대표하는 명소로 재탄생하였다.

○ 달링하버 개발과정 개요

- ▶ 1단계 (1788년~1825년) : 선착장 설치 및 공장시설 건설
- ▶ 2단계 (1826년~1983년) : 시드니의 중심 산업항구 역할
 - 피어몬트 다리 건설 : 1858년
- ▶ 3단계 (1984년~2000년) : 달링하버 항만재개발 착수
 - 시드니수족관, 해양박물관, 놀이공원, 중국 정원 등이 건립
 - 시드니올림픽 준비를 위해 경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 건립
 - ICC 건립을 통해 시드니 컨벤션 중심으로 자리매김
- ▶ 4단계 (2003년~) : 동(东) 달링하버 산업단지(바랑가루) 개발
 - KPMG 등 세계적인 그룹들이 입주한 대규모 사무건물 건립
 - 호텔, 리조트, 상업 시설 등 대규모 관광 레저 시설 건립
 - 달링하버에서 오페라하우스를 연결하는 14km 수변 산책로 연결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 달링하버 산업시설 가동 중단 및 항만개발 계획 고지 : 1984년
- ▶ 보행시설 및 공공시설 선(先) 개방 : 1988년

- ▶ Pyrmont 개발사업 완료 : 1992년
 - ▶ Cockle bay Wharf 개발사업 완료 : 1998년
 - ▶ Kings Street Wharf 개발사업 완료, 시드니 올림픽 개최: 2000년
 - ▶ 동(东) 달링하버 항만재개발 착공 : 2012년
 - ▶ 동(东) 달링하버 항만재개발 완공 : 2025년(예정)
- 달링하버 외에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프로젝트, 일본의 미나토 미라이21 등 항만 재개발 사업들 역시 도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은 성공적 사례들로 손꼽히고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해외 항만재개발 사례 ‘호주 달링하버’

2) 수집자료

○ 개발 역사 및 제도적 측면 검토

1820년대부터 본격 개발된 시드니 무역항은 20세기 중반까지 호주를 대표하는 항만으로 성장했지만 1950년대 육상 교통망의 발달로 물동량이 줄고 1980년대에는 인근에 보타니항이 새로 건설되면서 쇠퇴하여 1984년 무역항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에 뉴사우스웨일즈(이하 NSW) 주정부는 “150년 산업지역 달링하버를 시드니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구호 아래 재개발 계획에 착수하였고, 1984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1988년 1월 16일 호주 건국 200주년에 맞추어 공공에 공개된 이래 달링하버는 성공적인 해양관광 특구로 변모하여 국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하였다. NSW 주정부는 개발구역 내 토지 개발 촉진과 활용을 위해 달링하버법(Darling Harbour Authority Act)를 제정하고, 달링하버공사(Darling Harbour Authority)를 발족시켜 개발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달링하버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달링하버공사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 록

스, 서큘러 키를 함께 관리하는 Sydney Harbour Foreshore Authority(시드니항만연안공사)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통합초고층건물 및 랜드마크 건설 대신 바다와 맞닿은 공간인 수변을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하여 단정하게 정비된 해안 산책로를 만들고 그 뒤로 상업시설을 배치하여 특정 상업시설이 수변과 경관을 독점하지 않는 해양친수공간을 만들어냈다. 관광객뿐 아니라 시드니 시민이 찾는 즐길 거리를 마련한 수변 위락 공간에서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시드니 경제의 한 축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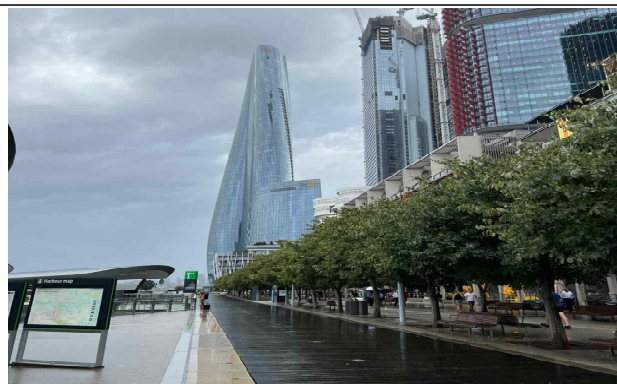
○ 주요내용

달링하버는 U자형으로 개발되었다. 먼저 중앙부와 피어몬트 지역을 포함하는 서(西)달링하버가 개발되고, 이후 Kings Wharf까지의 동(東)달링하버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었고, 2006년부터는 아직 방치된 하역장 등으로 남아있던 지역인 동(東)달링하버의 바랑가루 지역을 공공용지와 상업구역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에 착수하여 진행중이다. 신규호텔 건립 및 Hay Market 지역 개발 그리고 주거아파트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그간 달링하버에서 불허했던 고층 빌딩 건축 등도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해 허용하였다.

달링하버의 주요시설로는 시드니 엔터테인먼트 센터, 호주 국립해양박물관, 시드니 수족관, LG아이맥스 영화관, 중국 정원, 하버사이드 식당가, 톰발롱 공원, 국제컨벤션 ICC 센터, 피어몬트 브리지 등이 있다. 수변 지역에는 일반인들을 위한 산책로 등 공공 공간을 확보하고, 쇼핑센터와 푸드코트, 레스토랑을 다음라인에, 그리고 호텔 등 숙박시설은 도로 바깥에 배치하였다.

○ 관광효과

시드니는 호주 MICE 산업의 중심지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07년 APEC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두 행사를 치러낸 시드니 컨벤션 센터의 경우 2014년부터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여 2016년 12월 시드니 국제컨벤션센터와 엔터테인먼트 센터로 다시 오픈하였고 연간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다녀가고 있다. 2015년 기준 달링하버의 연간 유동 인구는 2,600만 명으로 6,000명 이상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 80여 개의 식당, 카페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달링하버를 방문하는 국제 관광객 절반 이상이 카페, 레스토랑 등을 이용하여 소비 활동을 하고 있다. 달링하버는 해외 관광객보다 국내 방문자가 더 오랜 시간을 머물고, 더 많은 소비를 하는 장소이다.



산책로 전경



페리터미널 방문 사진



국립해양박물관



시드니 국제컨벤션센터

3) 시사점 및 우리구 접목방안

○ 장기적인 플랜과 중단 없는 정책 추진

달링하버 재개발 사업을 포함하여 하버 브리지 건설, 센트럴 스테이션 및 서큘러 키로 대표되는 교통 환승시스템 구축 등 대중교통정책 등을 추진해온 과정을 살펴보면 단기적인 효과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 수립 당시의 목적을 추구하고 달성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와 같이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한 이유는 정부 정책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국민의 믿음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등 선진행정 역사에서 비롯한 무형의 자산일 것이다.

물론 달링하버 개발 당시 사업 예정 부지 대부분을 NSW 주정부 소유해 토지 보상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유형자산 역시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이다. 개발사업 시작 당시 4년 후 있을 호주건국 200주년을 기념하여 달링하버 재개발을 완료하겠다는 정책의지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기에 일부 환경 문제를 제외하고는 시민들의 반대 의사가 없었고, 사업추진 4년 만에 보행시설 및 공공시설은 성공적으로 시민에게 개방되었다.

개발이익 추구 극대화를 꾀하여 상업시설 및 고층 빌딩이 수변공간을 선점하지 않게 하고 시민에게 공공시설을 먼저 개방했다는 점이 달링하버를 성공적인 항만 재개발 프로젝트로 견인하고 차별화한 지점일 것이다. 그리고 시드니 도심과 항만이 연결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시민과 국내외 방문자, 관광객이 찾을 수 있게 한 점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호주 국민의 자연보전 의식은 달링하버 재개발에서도 보여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칼립투스” 나무의 활용이다. 유칼립투스는 호주의 대표적인 목재 자원으로 자연항균 효과가 있어 썩지 않는 특성이 있다. 달링하버항에는 상업항구로 조성한 초기에 사용

했던 선박 정박시설인 목재 구조물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사용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고 보호하고, 엄격히 관리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시드니 곳곳을 방문하며 유칼립투스를 사용한 전신주 등 각종 도시 기반시설물이 도심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무척 인상적이었다.

○ 신전항 어촌뉴딜사업 등 항만 및 연안 정비사업

해양수산부의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에 부산 강서구 신전항이 선정되어 해양휴식형 도심 어항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낙후한 어촌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특화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어촌어울림마당 설치, 방파제 보강, 어선 계류시설 정비, 어구어망 창고 정비 등 세부사업을 2023년까지 추진한다. 새로이 단장하는 신전항을 지역 주민과 방문자들이 찾게 하는 방법으로 현대화된 상업시설만이 아니라 주민이 수변을 즐길 수 있는 공공 공간을 조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신전항 뿐 아니라 가덕도 천성항, 두문지구 등 강서구는 빼어난 해양 경관 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국가어항 천성항 개발사업 및 천성동 1399-33번지 일원 두문항 등 관내 연안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보수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공공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신전항 주변으로 하단녹산선 예정지인 하신역이 들어올 예정으로 교통 접근성이 보장되는 호재가 있다. 연계되는 대중교통을 지금부터 안내하여 집객 효과를 높이고, 을숙도 생태관광 등 인근 관광자원을 한 번의 방문으로 즐길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주요 질의응답

- 쇠퇴한 항만에서 세계적인 명소로 수변공간 재개발 사업을 성공시킨 달링하버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면?
 - 달링 하버를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최초 목적에 충실했던 것. 사람에게 우선권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업무용 빌딩 개발을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음. 도시 전체 조화를 염두에 두고 많은 사람이 모여 즐길 수 있도록 해양관광기능 중심으로 함.
- 그리고 항만을 기존 도심과 고립시키지 않도록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집객 효과를 높인 점이 주효함. NSW 주의 금융·무역·상업중심업무지구와 항만 수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대중교통체계 구축 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전철과 버스, 수상버스 환승이 한 곳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시드니 또다른 대표 관광 명소인 오페라하우스 등을 비롯하여 도심과 연결되는 점은 국제 관광객과 국내 방문자 모두가 시간을 보내는 명소로 수년째 자리매김하는 기반이 됨.

5) 결과 분석

- 1984년~2000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 항만 재개발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랜드마크나 개발호재라는 주제에 집착하지 않고 시민에게 공간을 돌려준다는 최초의 핵심 아이디어에 집중하여 성공한 점이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쇠퇴한 산업지역이 시민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방법론에 있어 간결하게 부지 활용을 택한 것이 주효한 것이다. 보행자 전용 구역 설정은 탁월한 아이디어로 현재 핵심 관광자원이라 일컬어지는 달링하버-바랑가루-하버브리지-서큘라키-오페라하우스까지의 수변을 잇는 차 없는 산책로야말로 금번 시드니 연수에서 접한 최고의 관광자원이었다고 평한다. 그곳에서 만난 것이 유

명 관광 스팟에 몰린 관광객이 아니라 평일 낮 해안을 따라 조깅하는 시민과 홀로 도시락을 먹거나 산책하는 직장인의 풍경이었기 때문일 것이며, 그 풍경은 입안 및 추진의 결과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엿볼 수 있었던 최초의 정책 아이디어였다.

- 또한 단순히 생각하여 상업시설 및 고층 빌딩을 금지하고 공공 공간만을 해법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달링 하버의 마지막 개발 지역인 바랑가루 개발에서 크라운 카지노 등 고층 빌딩 건축을 허용하고 보존 지역을 가꾸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시대 흐름에 맞춰 방법론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 지역 실정에 맞춘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6) 추가 항만시설 사진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리지	가덕도 연안시설
		
서쿨라 키 ①	서쿨라 키 ② (유칼립투스목 선착장 시설)	신전항 개발 현장

3. 해양 시설(이자연 의원)

① 달링하버

1) 현장 개요 및 방문 배경

○ 방문 배경

- 항만도시의 도심 재생을 먼저 경험한 국외 선진도시들은, 수변공간 재생 사업을 통하여 공공성과 접근성을 갖춘 친수공간으로 재활성화하고 도심과 수변공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도심과 수변공간이 함께 재생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친수공간의 공공성과 배후 도심과의 연계를 위하여 노력한 국외 선진지 사례를 분석하여 도심 재생을 위한 수변공간 재활성화 사업 등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친수공간을 개발하여 주민에게는 휴식 및 여가 공간을 관광객에게는 해양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음.
- 강서구의 해양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친수시설 개발 방안을 모색

○ 사업개요

- 위치 : 뉴사우스 웨일즈 주 시드니 센트럴비즈니스지구 (Sydney central business district) - 개발면적 : 0.54km² (약 163,000평)
- 1980년대 초 시드니 항의 낙후된 항만시설과 버려진 철도부지 등을 친수공간으로 재개발한 사례로 달링하버 공사 (DHA:Darling Harbour Authority)는 1984년 총사업비 10억 호주달러(약 8천억원)를 들여 재개발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재래

부두 일대에 깔린 철로를 모두 걷어내고 복합문화지구로 육성하고자 하였음

- 1985년 7월 달링하버 재개발의 기본 컨셉과 방향이 확정 · 주요 건물 배치 결정을 비롯하여 디자인과 공사를 위한 프로세스가 확정되었고, 진행 과정은 건축 및 디자인 전문가에 의해 구성된 Quality Review Committee가 담당하고 공사는 디자인 회사 및 시공회사가 한 팀이 되어 진행됨
- 1984년 NSW주는 ‘150년 산업지역 달링하버를 시드니 시민에게 돌려주자’ 라는 구호 아래 달링하버 재개발을 결정, 달링하버 공사특별법(Darling Harbour Authority Act, 1984)을 제정하는 동시에 달링하버 공사(DHA)를 출범시켜 재개발사업 개발주체를 정하고 권한을 부여함
- 달링하버 관리청은 2000년까지 독자적인 주정부기관으로 달링하버 내의 관광상업시설 설치허가, 시설물 개보수 인허가, 공연허가, 건물임대 등 관리청의 기능을 유지
- 2000년 9억 달러의 자산을 시드니 항만청법(Sydney Foreshore - 8 -Authority Act, 1998)에 의해 새로 설립된 시드니 항만청에 넘기고 합병되면서 새로운 주정부 직속기관으로 재탄생
- 시드니 항만해안 관리청을 설립하여 시드니항 관리
- 달링하버공사는 철저한 상업주의적 운영을 바탕으로 달링하버의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 제작, 국제회의 및 각종 이벤트 유치를 통하여 개장 첫해부터 많은 수익을 창출하여 시드니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 현재는 달링하버를 포함한 시드니항 전체를 2001년 발족된 정부투자기관인 시드니 항만해안 관리청(SHFA : Sydney Harbour Foreshore Authority)이 총괄 관리함

○ 사업성과

- 2006년 달링하버 방문객은 2500만명을 웃돌고 있으며, 이들의 연간 달링하버 방문 횟수는 평균 2회를 기록하고 있음
- 전체 방문객의 19%를 차지하는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08달러로 이들이 지출한 금액은 4100억 원에 달함 - 달링하버의 재개발사례는 ‘황폐한 정박장에서 국제적 해양 위락지’로 발돋움해 ‘도심지 재개발의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달링하버는 2006년 약 2500만명 가량의 관광객을 유치했고 4000명이 넘는 신규 고용을 창출함
- 과거 단순 항만기능과 시드니 도심권의 배후 산업 기능만을 담당하면서 관광도시 시드니의 입지를 약화시켰던 골칫거리 항구가 수변개발과 연계한 도시재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해양 관광 위락지역으로 국제무대에 명성을 날리고 있음
- 1988년 달링하버 공식 오픈 후 지금까지 2억 명 이상의 방문객을 수용하는 기록을 세움.

○ 달링하버 주요시설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Sydney Opera House)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에 있는 공연장임. 1,547석의 오페라 극장과 2,679석의 음악당을 비롯해 여러 개의 극장, 전시관, 도서관 등이 있음. 부분적으로 원형의 모양인 바깥 표면은 자주 그 곳을 향해하는 범선의 소함대를 떠올리게 함.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200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선정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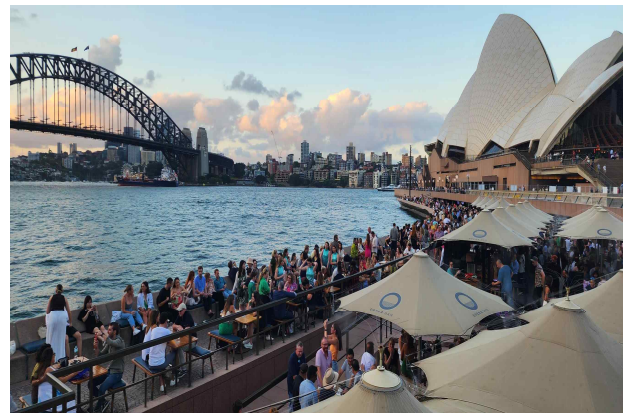
- 시드니 엔터테인먼트센터 : 고정 좌석 9,990석 및 강당에 설치된 1,552석을 포함하여 총 11,542석 규모의 공연시설로서, 오페라 · 발레 · 음악콘서트 · 세미나 · 국제회의 등 각종 행사를 위한 다목적 공연장
- 호주국립해양박물관 : 호주 연방정부에서 1985년 3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약 6년간의 공사를 거쳐 1991년에 완공 호주의 해양 역사, 어패류의 생태계, 해양자원 등 다양한 해양환경의 체험 기회 제공. 어린이의 현장체험 학습장소로 각광 (영도의 경우, 해양박물관 및 해양 전문기관 및 체험프로그램 연계, 수학여행 등 프로그램 개발)
- 시드니 수족관 : 1987년에 착공하여 1988년7월에 완공. (총 공사비는 초기 공사비 3천만달러를 포함 총4천4백만 달러) 1,200평 규모로, 미국의 몬테레이수족관과일본의 오사카 수족관과 함께 세계 3대 수족관 규모. 연평균 1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수족관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들의 55%가 외국인 관광객임
- 하버사이드 : 미국볼티모어Harborplace와 마이애미Bayside를 모델로 하여 계획한 해변축제상가(festival market)로서 3층 규모 연면적은13,703 m2. 다양한 상점과 식당이 들어서 있으며 하버를 향해 90피트폭의 해변산책로(promenade)를 따라 카페와 식당 등이 줄지어 있어 수변공간에 활기 제공
- 톰발롱공원 : 달링하버 전체구성의 핵심으로서 원형의 형태로 구성. 하버와는 직선의 해변산책로와 그 주변에 일렬로 늘어선 나무로 연결. 공원에는 비공식 퍼포먼스를 펼치는 공연장소 · 테라스 · 놀이터 · 잔디밭 등이 있으며, 가장자리에는 공원을 둘러싼 긴 연못이 위치 최근 카지노, 호텔 등 관광 및 위락시설이 들어서고 있음. (영도는 아미르 공원 등과 연계)

- 시드니컨벤션센터 : 호주에서 가장 큰 전시장 및 회의 공간인 시드니컨벤션센터는 달링하버 재개발 프로젝트의 공공부문 시설중에서 가장먼저 건립(1988년) 3,5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30개의 회의실과 30,000평방미터의 전시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매년 600여 행사를 유치.
- 서큘러 키(Circular Quay) : 시드니만(Sydney Cove)의 중심에 자리한 페리 선착장으로 전철역(Circular Quay Station)이 바로 앞에 자리하고 페리가 수없이 오가는 선착장이 있어 교통의 요지로 꼽히는 곳임. 서큘러 키를 출발한 배는 맨리(Manly)와 왓슨스 베이(Watsons Bay), 모스만(Mosman), 타롱가 동물원(Taronga Zoo) 등 도심 주변 명소들을 오감.
- 하버 브릿지(Harbour Bridge) : 시드니 하버 브리지(Sydney Harbour Bridge)는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있는 다리임. 시드니 도시에 위치한 철제 아치교로, 세계에서 4번째로 긴 아치교임. 시드니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다리로 시드니 중심 상업지구와 북쪽 해변 사이의 시드니항을 가로질러 철도, 차량,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을 담당하는 주 교량임. 100년 후로 내다보고 다리 높이를 건설, 지금도 모든 대형선박이 다리 밑을 지나다닐 수 있음. 인접해있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함께 시드니와 오스트레일리아를 대표하는 상징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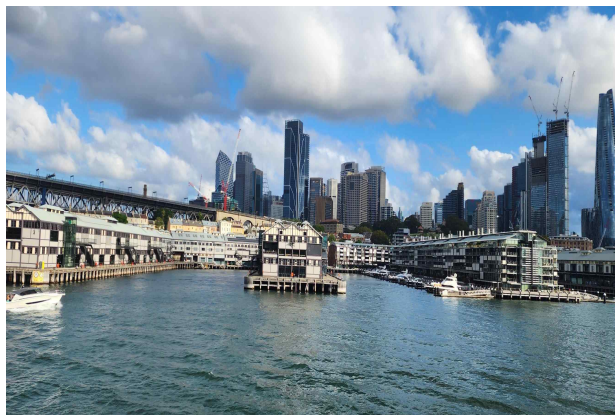
2) 수집자료



달링 하버 야경



오페라하우스 앞 친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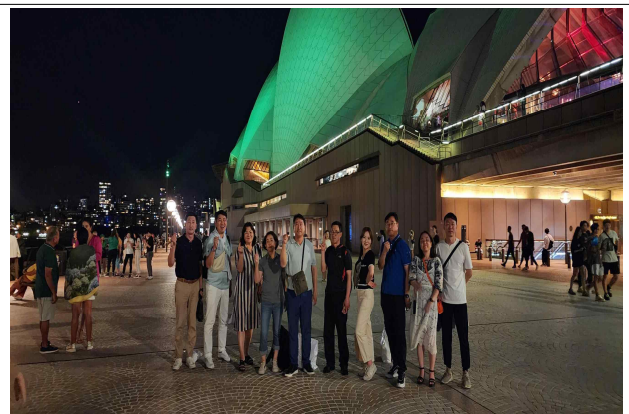
옛 창고를 활용한 주거시설



하버 브릿지와 크루즈선



서큘러 키 선착장



방문 사진

3) 시사점 및 우리구 접목방안

○ 시사점

도심지 재개발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달링하버 재개발사례는 상업시설과 시민 친수공간을 잘 조화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부주도의 재개발에 따른 투자수익은 시드니의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달링하버가 오페라하우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드니의 관광명소로 부상하게 된 것은 150년간의 항만 운영으로 시민들의 접근이 차단됐던 지역을 재개발을 통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시민의 레저활동을 참작한 친수공간의 확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달링하버의 최 인접지역(absolute waterfront)은 해안 산책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과 관광객의 몫이다. 그다음은 레스토랑 및 각종 관광위락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장 외곽지역은 호텔 등 숙박시설이다. 사람이 중심이 된 달링하버 재개발 프로젝트는 1988년 달링하버 공식 오픈후 지금까지 2억명의 방문객을 수용하는 기록을 세웠다.

대부분의 한국자치단체에서는 최소한 1~2개의 지역 관광개발 프로젝트가 있다. 자체 관광개발 프로젝트 추진 시 단기투자 수익을 고려한 상업성 개발보다는 달링하버 재개발사례에서 보듯이 사람 중심의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달링하버 시드니 컨벤션 센터 옆에는 제법 큰 규모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이 놀이터 부지는 상업용으로 쓰면 큰 수익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하지만 그 지역은 미끄럼틀, 그네, 시소 등 어린이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 신나는 놀이터일 뿐이다. 가족들은 아이들의 노는 모습에 즐거워하며 달링하버 내에서 시간을 보낸다. 늘 사람들이 북적인다. 그 사람들은 달링하버 이곳저곳에서 음식을 사먹고 쇼

평을 즐긴다. 달링하버 운영주체인 NSW주 시드니항만청의 발표에 의하면 일반 관광객은 연평균 2회 달링하버를 재방문하며 시드니 시민들은 연평균 6.5회 달링하버를 다시 찾는다고 한다(Sydney Foreshore Harbour Authority 2006)

그리고 각종 축제를 함께 하여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음 - 새해불꽃놀이(1월), 호주의 날 축제(1월), HOOPLA(3월), 재즈 축제, (6월), 겨울음악회(7월), FIESTA(10월), 크리스마스축제(12월) 등 시드니 시민의 휴식 공간 제공 및 시드니 관광 산업과 철저히 연계시켜 시민 여가시설과 관광객 위주의 시설을 접근이 가장 용이 토록 배치하여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통해 부산 강서구 친수공간 개발과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에 활용 가능성이 있다.

○ 우리구 접목 방안

우리 구는 부산시 전체의 30%에 달하는 해안선을 끼고 있는 해양수산의 중심도시로서 수산업의 근거지라 할 수 있는 어항이 16개소가 소재하고 있다. 그리고 낙동강 하류에 위치, 해수와 담수가 교차하고 있어 천혜의 어업환경과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호주는 넓은 국토와 풍부한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쟁 후에 급성장해왔고 삼면이 바다지만 호주에 비해 좁은 국토 면적, 많은 인구 때문에 항만, 물류, 주거, 수산업이 공존하는 지역이 많아 달링하버의 개발사례를 바로 적용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시드니의 달링하버는 기다랗게 형성된 만과 깊은 수심으로 바다와 인접한 강의 하류 퇴적 지대에 형성된 강서구와 입지 조건과 다르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는 산악지형이 많은 부산의 도심과는 달리 평지로 된 지역이 대부분이고 수심이 낮고 해안에는 어항과 주거지역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강서구 지역에 특성에 맞는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 우리 구는 가덕도동의 신공항사업, 자연형 하천이용 친수 생태형 수변 자족도시로 진행 중인 에코델타시티,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그리고 국가 지정 사업에 선정된 신전항 어촌 뉴딜 300, 도보로 해상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수상워크웨이 등이 해당된다. 그나마 우리 구는 국제공항을 끼고 있어 뒤늦게 주거지역등으로 개발되고 있어 구도심에 비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한 개발이 가능해 보인다.

서부산 관문의 중심, 소음피해 없는 24시간 안전하게 운영 가능한 가덕도 신공항건설이 추진 중에 있어 2030 엑스포 개최가 이루어지면 이후 외국인의 많은 유입이 기대된다.

자연형 하천을 끼고 아름다운 친수 환경과 최첨단 정보기술이 적용되어 미래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건설 중인 에코델타시티는 친수 환경과 신기술이 어우어지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로 탄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낙후된 어촌이 현시대에 맞게 재정비되는 신전항 어촌 뉴딜사업은 해양휴식형 도심 어항 조성을 통한 해양관광 콘텐츠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마리나, 수변문화공간 창출을 기대한다.

이 사업이 완성되는 시점에는 현대에 맞는 새로운 개념의 어촌마을의 모범 개발 사례가 되리라 보고 있다.

우리구의 천성항은 강서구 유일의 국가어항으로 2008년 지

정되었다. 어민을 보호하고, 친수공간 및 경관시설 등을 조성하여 어촌관광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방파제와 접안시설, 물양장 등 어항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그 결과 천성항은 현재 어선 500여 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었으며, 이는 해양관광유람선 등 해양관광자원 및 가덕신공항과 부산 도심을 연결하는 여객선(페리) 등 해상교통수단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강서구의 강점이다.

그리고 부산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 및 개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가덕신공항 개항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24시간 공항에서 처리한 여객과 화물 수요를 내륙까지 연결하는 공항 교통망 및 대중교통체계 구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해상교통수단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천성항 페리를 가덕도-부산북항(엑스포)-해운대(광안리)-기장(오시리아)간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이다. 가덕도 공항복합도시(에어시티) 내 놀차 에어시티 지구와 천성 항공물류 지구 조성 계획에는 천성국가항을 기점으로 하는 해양교통수단 및 관광자원화 검토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구상이 현실화 되었을 때 천성항은 부산시를 넘어 남부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가덕도 대구축제, 벚꽃 축제등 일시적인 축제 형태의 행사가 아닌 항시 관광객의 유입이 기대되는 수상워크웨이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이는 낙동강 하구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도보로 만끽할 수 있도록 명지오션시티~신호동~진우도~가덕도를 연결하는 총연장 2.8km 규모의 도보용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4) 주요 질의응답

- 물류 중심의 상업항에서 공공성과 관광 등 친수공간으로 추진 배경
 - 1857년에 건설된 달링하버를 가로지르는 소형 목재 피어몬트 다리의 대체수단으로 시드니 중심지와 달링하버 인근 지역 간의 접근성과 물류이동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902년에 새로운 피어몬트 다리를 건설함.
 - 이후 NSW 주정부는 달링하버를 시드니 산업항의 중심지로 발전시켰으나 1950년대 시드니에 전철 및 고속도로가 속속 설치되면서 과거의 시드니 전역을 커버하는 물동량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기 시작함.
 - 1970년대에는 달링하버에 있던 물류시설, 냉동 공장 등이 문을 닫기 시작하였으며 이곳에 정박하는 선박의 수도 급격히 감소함.
 - 시드니 업무 중심지역과 접하고 있는 지리적인 장점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달링하버 재개발 여론이 일기 시작함.
 - NSW 주정부에서는 시드니 하버 재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여러 투자기관을 만들어 시드니 하버 지역을 현대적인 문화도시 중심지로 개발하기 시작함
 - 선착장 및 하역장을 수상복합지구로 변모 시키는데 성공함.

5) 결과 분석

- 구 물류 중심의 상업항이 다른 운송 수단의 발달로 그 기능을 잃어버리자 지엽적인 개발인 아닌 총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미래를 내다보고 복합상업, 문화, 관광 , 사람중심의 친수공간등 다방면을 고려하여 개발 진행
- 항의 본래 기능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교통, 경관, 휴식, 관광, 공연등 복합 항만도시로 개발되어 도시기능을 살리면서 휴식 공간까지 고려하여 편의성과 실용성을 도모함
-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항을 봤을 때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물론 항의 입지와 만의 크기가 다르지만 도시 재생 플랜을 복합적으로 실행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능, 미관 측면을 다 잡은 점에서 배울 점이 많음

6) 참고문헌

- 달링하버 연관 사이트:
 - <https://www.darlingharbour.com/precincts/icc-sydney>
 - <https://www.sydney.com/destinations/sydney/sydney-city/city-centre/transport/circular-quay-manly-ferry>

4. 도시기반 시설(김정용 의원)

① 시드니 올림픽 파크

1) 현장 개요 및 방문 배경

○ 도시개발에 있어서 친환경 도시 조성이 주요 과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요즘 우리구에 조성 중인 매립장의 향후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자연친화적 공원으로 탈바꿈한 호주 시드니 올림픽파크를 방문함. 시드니 올림픽파크는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지역을 개조하여 2000년 여름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임. 이 공원은 대회의 메인 경기장인 시드니 올림픽 경기장과 함께 총 10개의 경기장, 인공 호수, 식물원, 박물관 등 다양한 시설을 포함하고 있음. 시드니 올림픽파크는 과거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전한 대표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 사례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예시임.

○ 조성과정

- 쓰레기 매립지 운영: 1920년대부터 1986년까지 쓰레기 매립지로 운영되었음.
- 공원 개조 계획 수립: 1993년 9월, 호주 시드니가 2000년 여름 올림픽 대회의 개최지로 선정되어, 시드니 올림픽 파크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7년간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이 수립됨
- 건설과 시설 조성: 1998년에는 시드니 올림픽 경기장이 준공되었고, 이후 다른 경기장과 시설들이 조성됨. 또한 쓰레기 매립지 지하에 가스 발생을 이용한 발전 설비가 건설되었고, 이 발전 설비는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수집하고 발전

기를 통해 전기로 변환하여 사용함. 그 외 수질 관리 시설과 쓰레기 처리 설비를 설치하였으며 지상에는 경기장, 공원, 박물관 등 다양한 시설이 건설되었음. 시드니 올림픽파크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에너지 절약,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환경관리 활동을 진행 중임.

- 인프라 구축: 시드니 중심부와 시드니 올림픽파크 간의 교통 네트워크가 개선되었으며, 철도와 도로 등을 통해 시설과 도시를 연결하는 것이 먼저 추진됨.
- 대회 진행과 이후: 2000년 여름 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고, 대회 이후에도 시드니 올림픽파크는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 체육 활동, 시민의 여가 활용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또한, 시드니 올림픽파크는 지역 사회의 개발과 문화 활동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신재생 에너지 활용법

- 태양광 발전: 시드니 올림픽파크 내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어 태양광 전자판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며,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침출수 처리 시스템: 지하수나 바닥수와 같은 지하 수리 체계에서 수질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침출수에서 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처리하여 지하수와 바닥수의 품질을 향상 시키고 있으며, 침출수의 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지하수와 바닥수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공원 내 주민편의 시설

- 쇼핑센터: DFO Homebush 등 다양한 상점이 들어서 있음.
- 체육시설: 자전거 경주장, 수영장, 테니스 센터, 피트니스 센터 등을 갖추고 있음
- 다목적 이벤트 공간: Waterview 등 다양한 종류의 행사, 공연 및 회의 개최 가능
- Bicentennial Park: 캠프장, 바베큐 시설, 자전거 도로 등을 제공
- 코카콜라 콜리세움: 대형 음악 공연 및 스포츠 경기를 개최하는데 이용 됨. 매년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열리고 있음.

2) 수집자료

		
태양광 발전 시스템	침출수 처리 시스템	공원 내 쓰레기통
		
주민 편의 시설	주민 편의 시설	방문사진

3) 시사점 및 우리구 접목방안

○ 시사점: 쓰레기매립장에서 대규모 스포츠 행사인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건설된 종합 문화체육공원으로, 이러한 대규모 행사를 통해 기반시설과 교통망 등의 인프라가 향상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는 다양한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음.

-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건물과 인프라를 설계할 때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설계하였고, 생물질 에너지와 같은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는 등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에도 주력하였음.
- 대규모 스포츠 행사의 유산 활용: 시드니 올림픽파크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통해 건설된 인프라와 시설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문화, 예술, 스포츠 산업 등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이러한 유산 활용 방식은 대규모 행사가 지역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임
- 스포츠와 문화를 결합한 다양한 이벤트: 시드니 올림픽파크는 스포츠와 문화를 결합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해외 여행객들의 관심도 높이고 있음. 이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우리구 접목 방안

- 강서체육공원: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설립된 시설로 실내체육관, 하키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양궁경기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시드니 올림픽 파크처럼 주민편의시설, 바베큐장 등 주민친화적인 시설을 추가하여 일상적인 활동에도 즐길수 있는 구민 이용 활성화 방안과 관광명소로도 활용될 수 있는 우리구 접목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강서구 생곡 쓰레기 매립장: 강서구 생곡동 산61-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생곡 매립장은 위생적, 안정적인 광역폐기물 매립시설의 설치·운영과 쓰레기의 적절한 처리로 환경 보전과 시민 보건 위생을 보장하고, 위생 매립에 의한 2차 환경 오염 방지 및 쾌적한 시가지 조성으로 무단 투기 또는 불법 매립으로 인한 국토의 황폐화 방지를 위해 조성되었음. 현재 당장은 시드니 올림픽 파크처럼 쓰레기 매립지를 공원으로 전환할 순 없지만, 시드니 올림픽파크가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 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됨. 스마트 감지 기능 등 스마트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지능형 전력 공급 시스템, 전력 네트워크 모니터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해 보임. 스마트 미터링같은 기술을 통해 전력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우리구 접목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부산그린파워(주)의 경우 204,581㎡의 부지 위에 폐기물 최종(매립) 처리시설과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매립잔량이 100만㎥ 남아 있는 상황임. 잔량과 연간 매립량을 파악해 보았을 때 대략 향후 10년이면 사업이 완료되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매립 완료 후 인근 신호동(약17,000명) 주민 및 명지국제신도시, 명지오션시티 등의 주민들뿐 아니라 강서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 친화적 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자원 재활용 센터 지하화: 강서구 생곡동에 소재한 자원 재활용 센터를 지하화하면 건축물의 지표면 위의 공간 보존 및 활용이 가능함. 또한 지하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하터널을 구축하는 방법도 있을 것임. 안정성 검토를 우선으로 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구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적인 근거가 뒷받침 된다면 지하 및 지상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구 접목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신호 하수처리장 공원개방: 운영이 중단된 신호 하수처리장에 주민 편의 시설 및 문화공원이 조성되고 있음. 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와 독서문화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신호동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10여 년 이상 가동이 중지돼 있던 부산환경공단 산하 신호하수종말처리장에 2021년 7월부터 작은도서관과 쌈지마당, 체육시설, 갈매길 등을 갖췄음. 추후 메타버스 체험존과 장난감 도서관을 포함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 조성 예정되어 있으며, 시드니 올림픽 파크처럼 스마트 기반시설 활용, 친환경 공원 조성, 안정성 및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등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통한 체계적인 공원 조성으로 인공철새서식지와 기존 신호 공원과 함께 주민들의 정주환경에 도움이 될 자연친화·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 질의응답

○ 향후 시드니 올림픽 파크의 개발 및 운용 계획

- 마스터 플랜 2030 및 마스터 플랜 2050 등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개발 및 운용 계획을 공개해 놓은 상황이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시드니 올림픽 파크 관리

방식을 구체화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음. 시드니 올림픽파크는 다음과 같이 테마별 계획을 가지고 있음

- 1) 30% 저렴하고 주요 근로자 및 사회 주택이 전 구역에 걸쳐 있는 추가 주택 및 다양한 주택 제공
- 2) 낮과 밤 내내 활성화된 중심가가 있는 활기찬 복합 용도 타운 센터 형성
- 3) 학교, 커뮤니티 허브, 공공 실내/실외 코트 및 새로운 놀이터를 위한 새로운 부지 검토
- 4) 교통 개선을 통한 접근성 강화 및 주변 커뮤니티를 모험, 물, 자연과 연결하는 야외 활동을 위한 안식처 제공
- 5)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물, 폐기물 및 에너지 시스템으로 주민과 기업이 ESG 및 순 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5) 결과 분석

- 시드니 올림픽 파크는 다양한 시설이 매우 잘 갖춰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우선, 체육시설의 규모와 다양성을 꼽을 수 있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골프장, 수영장,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대형경기장도 갖춰져 있어 다양한 스포츠 경기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음.
- 또한 역사 깊은 나무, 식물 등을 포함한 넓은 공원으로 자연 환경 보존이 잘 되어 풍부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공원이 전체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음.
- 주민 제공시설, 문화공간이 갖춰져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바비큐시설 등이 인상 깊었으며 드넓은 공간은 문화행사, 축제를 즐기기에 더 할 나위 없는 최적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 시드니의 랜드마크로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았고 시드니 올림픽 파크 향후 정책에서도 교통 개선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시드니 올림픽파크는 스포츠, 문화, 예술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즐길거리가 다양하고 힐링 할 수 있는 장소로서 향후 강서구 맥도그린시티 조성사업 등 공원 조성, 체육시설 건립 시에 많은 참고가 될 장소라고 생각됨.

6) 참고문헌

- 올림픽 파크 공식 홈페이지: <https://www.sopa.nsw.gov.au/>

② 센트럴 시티역

1) 현장 개요 및 방문 배경

○ 시드니 센트럴 시티(Central City)는 시드니의 중심부에 위치한 대형 교통 허브인 센트럴 시티역(Central Station)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시드니의 중심지인 시티(CBD)와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음. 시드니 센트럴 시티역은 시드니에서 가장 큰 철도 역 중 하나로, 전국적인 철도 네트워크와 광범위한 버스 및 지하철 노선과 연결되어 있음. 또한 국내외로 향하는 시드니 공항과 시드니 항구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 시드니 대중교통 환승 정책

- Opal 카드: 시드니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Opal 카드를 사용함. Opal 카드는 전국적으로 유효한 교통카드로, 버스, 전철, 트램, 기차 등 모든 대중 교통 수단에서 사용할 수 있음. Opal 카드를 이용하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환승 시 60분 이내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음.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Opal 카드를 이용하여 환승 시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시드니의 중심지인 시티(CBD) 내에서 버스와 기차를 환승할 경우, Opal 카드를 이용하면 무료로 환승할 수 있음.

○ 친환경 정책

- 태양광 패널 도입: 3개의 중앙역 플랫폼에 전력을 공급할 것이며 전기 수요를 약 10%까지 낮출 계획이며 태양광 패널은 도시 간 철도 12~14 플랫폼 위에 장착되며 역의 유산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설치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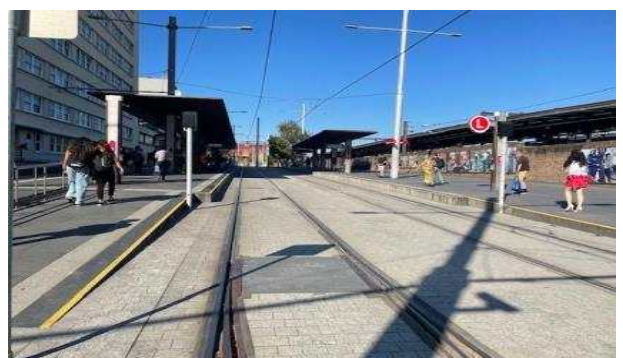
2) 수집자료



센트럴 시티역 역사를 나타낸 벽화



역사 입구



트램선로



차편 시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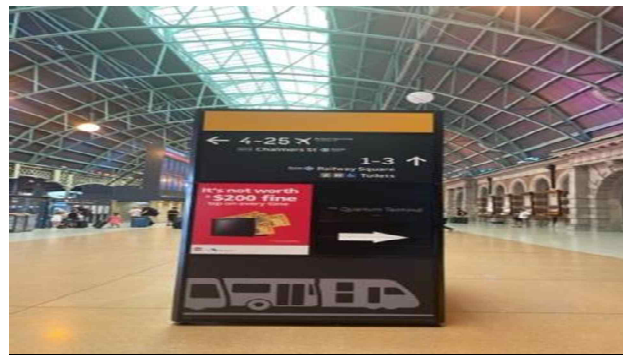
차편 입구



방문사진



안내판



표시판

3) 시사점 및 우리구 접목방안

○ 시사점: 시드니 중심부에 위치한 중요한 교통 허브로, 주요 철도 및 지하철 노선의 출발점으로 교통 환승의 편리함이 갖춰진 교통의 요지임.

- 교통 중심지: 센트럴 시티역은 호주 최대 규모의 교통 허브로, 다양한 교통수단이 연결되어 있음. 주요 철도 및 지하철, 트램 노선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시드니 여행의 출발점으로도 적합하며, 교통의 편리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 이동이 용이함.
-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 센트럴 시티역은 다양한 상점, 음식점, 카페, 은행, 화장실, 휴게실 등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완비되어 있음. 특히 센트럴시티역은 건립 초기 모습 그대로 갖춰져 있고 내부 판매 시설도 초기 형태 그대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이 지금 현재 세계적 관광지로서의 시드니를 만든 원동력이라 생각이 듦.
- 안전한 환경: 시드니 센트럴 시티역은 24시간 경비가 운영되고 CCTV로 감시되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 또한, 여행자들을 위한 안내센터도 운영되어 있음.

○ 우리구 접목방안:

- 도시철도(하단-녹산선)과 노면전차 트램(강서구 대저-명지오션 시티) 건설 계획 중인 우리구는 대저역을 중심으로 경전철(부산-김해), 노면전차 트램, 광역버스의 환승을 연계하는 대표적인 교통환승역으로 조성하여, 센트럴 시티역처럼 역사 내 태양광 시설, 물 재이용시설 등 스마트 기반시설을 접목하여 친환경적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구민들을 위한 더 다양한 환승 정책으로 구민들의 교통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4) 주요질의응답

- 시드니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시드니시의 정책
 - 해안가 쪽 모노레일, 무인기차, 무인 메트로를 건설 중이며, 시민들이 자가용을 타지 않고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지하터널,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교통체증이 많이 완화되고 있음
 - 고속도로 등 유료화 도로가 많아 톨게이트비가 많이 발생하지만 노동자에 한해 캐시백이 되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음

5) 결과 분석

- 시드니 센터럴 시티역은 교통의 중심지로서 기차, 트램, 버스 등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어디든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항구도시인만큼 페리, 수상택시 등 수상교통의 발전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모든 교통수단들의 환승정책이 정착화되어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느꼈음
- 역 주변과 내부에 다양한 음식점과 상점들이 있어 쇼핑이나 식사도 할 수 있으며, 건축물 양식도 고풍화되어 있고 관리 및 유지보수도 잘 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음
- 관광성, 접근성, 편리성, 효율성 등 모든 장점을 갖추고 있는 역사라고 생각이 되었음

6) 참고문헌

○ 도시철도 홈페이지: <https://transportnsw.info/>

7) 추가 도시기반시설 사진



시드니 도시 내 하수처리 시설



시드니 도시 내 하수처리 시설



시드니 동서 지하도로



공원 주차 시설

5. 문화관광 시설(구정란 의원)

① 시드니 왕립 박물관

1) 현장개요 및 방문 배경

- 시드니 왕립 박물관은 호주 최대 규모의 박물관 중 하나이자, 오세아니아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등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으로서 다양한 전시물, 아름다운 건물, 편리한 시설과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를 누릴 수 있다.
- 박물관 내부에는 오세아니아 지역의 문화와 역사, 예술, 과학 등의 주제 등을 다루고 있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전시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 박물관의 건물과 디자인이 매우 독특하고 아름다우며, 박물관의 건물은 현대적인 건축과 디자인을 활용하여, 매우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박물관 내부에는 매우 편리한 시설과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 카페, 선물샵, 휴게실 등이 함께 운영되고 있어서,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시물들에 대한 해설이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고 있다.
-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이벤트와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서, 방문객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수집자료

	
왕립 박물관 전경	왕립 박물관 전경
	
이벤트 사진	방문사진

3) 시사점 및 우리구 접목방안

○ 시사점

- 박물관은 오세아니아 지역의 문화와 역사, 예술, 과학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오세아니아 지역의 유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박물관 내부에는 다양한 예술작품과 과학적인 전시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식물, 과학, 역사, 곤충 등 체험이 가능하며,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장소이다.
- 오세아니아 지역의 고유문화와 예술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장소다.

- 박물관 내부에서는 다양한 해설과 가이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방문객들은 전시물들을 보면서, 오세아니아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다.
-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가이드 투어, 워킹 투어, 아침 요가, 자전거 대여, 자연 역사 투어, 예술 갤러리 등이 있다.

○ 우리구 접목 방안

- 현재 강서구에 진행 중인 맥도그린시티 조성사업은 대규모 공원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첨단미래산업단지 및 저탄소 저밀도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왕립 박물관이 제공하고 있는 주민친화형 다양한 프로그램(체험형 프로그램 제공, 캠핑존, 식물관 및 박물관, 먹거리 등)을 통해 문화와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강서열린문화센터 건립: 현재 건립 중인 강서열린문화센터는 각종 문화예술을 통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열린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시드니 왕립 박물관처럼 지역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강서열린문화센터 주변 대저생태공원까지 연계하여 한 지역에서 다양한 관광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가덕신공항 건립과 연계하여 시드니항의 대중교통인 “페리”와 동일하게 가덕도(천성항)~해운대 여객 노선 신설을 통한 도심내 교통체증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과 해양수도 부산의 해양관광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추진이 필요하다.

4) 주요 질의응답

- 축제, 문화행사 시 안전사고 방지대책
 - 축제 시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주최 측에서 안전과 보안 요건이 갖춰져 있는 수칙을 제시하고, 이를 최종 검토하여 축제가 진행됨. 그 수칙에는 보험, 교통, 쓰레기 예측량, 쓰레기통 배치, 관내 경찰·소방관 등 유관기관 협조사항, 행사지원 준비사항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수칙을 어길 시에는 벌금 부과 및 다음 행사 시 불이익을 줌으로써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세우고 있다.

5) 결과 분석

- 박물관에서 다양한 문화와 역사, 예술, 과학 등의 주제를 다루는 전시물들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울수 있고 자연환경을 보존한 아름다운 공원을 보며 계속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장소이다.
- 전시물들은 단순한 식물, 작품이 아닌 오세아니아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서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된다.
- 시민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이 사전예약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많은 나라의 해설과 가이드 서비스가 제공되어 편리함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6) 참고문헌

- 시드니 왕립 박물관 홈페이지: <https://www.rbgsyd.nsw.gov.au/>

② 오페라하우스

1) 현장 개요 및 방문 배경

- 오페라 하우스는 호주의 수도인 시드니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로, 시드니 항에 멋진 해안 경관을 바라보며 위치하고 있다. 이 건축물은 파란색과 흰색의 유리, 콘크리트, 강철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유의 독특한 모양과 디자인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 중 하나이다. 건축가 요한 올프는 이 건축물의 디자인에 대해, 대자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이러한 디자인은 곡선의 형태와 크기가 다른 세 개의 건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오직 음악, 연극, 무용 등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회의, 전시, 행사, 페스티벌, 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적 행사와 이벤트가 열리는 다목적 공간으로 큰 문화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 대자연의 영감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 명소로서 시드니를 상징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 수집자료 분석



오페라 하우스 전망



오페라 하우스 야경



오페라 하우스 앞 카페 및 음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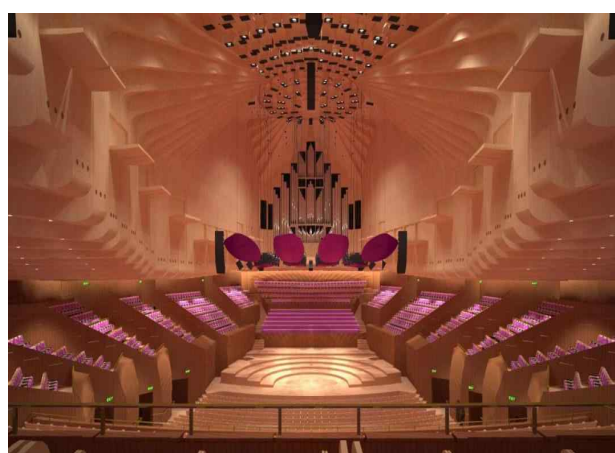
오페라 하우스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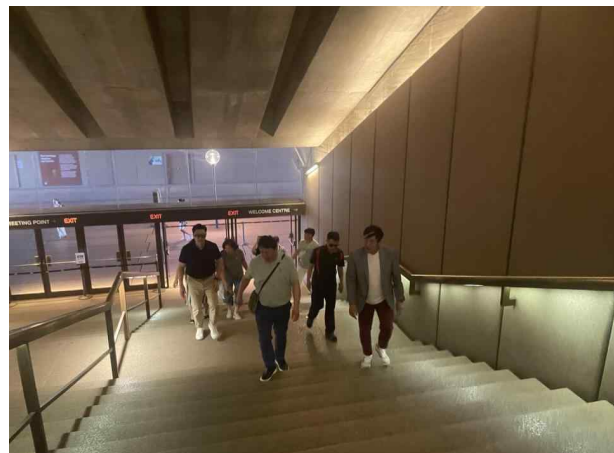
오페라 하우스 내 휴식공간



오페라 하우스 바닥(조각 구성)



오페라 하우스 공연장



오페라 하우스 방문사진

3) 시사점 및 우리구 접목방안

○ 시사점

- 예술적 가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독특한 디자인과 아름다운 건축물로 시드니를 상징하는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 문화적 가치: 다양한 문화 이벤트와 문화제공으로 호주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 경제적 가치: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로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건축물을 감상하고, 문화 이벤트를 즐기며, 시드니의 아름다운 해안도 함께 즐기고 있다.

○ 우리구 접목 방안

- 낙동강 아트홀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보며 대규모 공연장과 체육센터를 겸비하여 진행 중인 낙동강 아트홀을 떠올렸다. 명지국제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낙동강 아트홀이 시드니를 생각하면 오페라 하우스가 떠오르는 것처럼 강서구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 자체 건축물이 지니고 있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주변 인프라와 주변 시설, 공원 등 자연과의 어울림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발해 나갈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관광객들이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강서구 특색을 살린 식당과 상점을 겸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4) 주요 질의응답

- 오페라 하우스의 현대적 노력: 오페라 하우스는 스마트 기반 시설을 도입에 힘쓰고 있으며, 혁신적인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 EBI(Enterprise Buildings Integrator): 건물 성능 데이터의 패턴과 추세를 식별할 수 있는 고급 분석 기능과 에너지 효율성을 최적화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플랫폼을 적용하고 있다.
- 가상 현실(Virtual Reality) 기술 활용: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가상 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이 하우스의 다양한 공연장에서 몰입형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 인터랙티브 터치 스크린: 오페라 하우스 내부에는 인터랙티브 터치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공연 정보를 검색하고, 티켓 예매를 할 수 있다.
- 스마트 가이드 앱: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스마트 가이드 앱을 제공한다. 이 앱을 사용하면 오페라 하우스 건물 내부를 스캔하여, 건물의 역사와 설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IoT(Internet of Things) 기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내부에는 IoT 기술이 도입되어 있다. 이를 통해, 건물 내부의 온도, 조명 등을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다.

5) 결과 분석

- 오페라 하우스는 외관뿐만 아니라 내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건축물이었으며, 오페라 하우스에서 제공되는 예술, 문화, 공연은 살면서 한번은 경험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오페라 하우스에서 진행되는 공연은 대규모, 고도의 기술과 실력을 가진 예술가들이 참여하기에 평소에 경험하기 힘든 몰입감과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어 1년 공연이 사전 예약이 거의 완료되며, 호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찾고자 하는 공연장으로서 호주의 대표 관광상품이다.
- 오페라하우스의 경우 건립 초기부터 향후 유지관리 방안까지 고려하여, 모든 건물을 조각조각 퍼즐 형식으로 건물을 건립하여, 보수가 필요한 부분만 보수가 가능하여, 지금까지 건물 외형 및 내부 모두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 100년 후에도 현 모습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축하였다는 것이 매우 대단하다고 생각이 든다.
- 오페라 하우스는 자체 기능을 넘어서서 아름다운 해안, 공원과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주변 어느 장소에서나 랜드마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6) 참고문헌

- 오페라 하우스 홈페이지: <https://www.sydneyoperahouse.com/>

VI 기 관 방 문

1. 한인회

① 역할

- 시드니 한인회는 호주 NSW 주 한인 동포들이 설립하여 동포들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설립 목적과 사업 활동은 호주 사회에서의 동포들의 지위 향상, 한인 커뮤니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각 한인사회 단체 등과 함께 호주 정착에 필요한 정보교류, 동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호주사회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동포들과 한민족의 정서를 공유하는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② 역사

- 1960년대 후반에 한국인 이민자들이 호주 시드니에 도착하면서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한인들이 모여 생활하고 서로 돕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인회는 한국 문화와 언어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역할도 맡게 되었다.
- 1975년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단체로 당시 500여명이었다. 그 후에는 한국문화축제, 한국어 학교, 이민자 지원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한인 사회의 발전과 통합을 위해 노력해왔다.
-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는 한국문화축제가 매년 열리면서 시드니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축제는 한국의 전통 음식, 춤, 음악, 미술 등을 소개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 시드니 한인회는 현재도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한인 사회의 발전과 한국 문화의 보존 및 전파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자 2-3세대의 경우 호주에서 자라고 성장하여 현재 전문직종에 다수 근무하고 현지 적응으로 인하여 한인회 필요성이 약해져 2-3세대를 한인회 구성원으로 만드는 필요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③ 지원사업

- 이민자 지원 및 상담: 이민 관련 법률 상담, 건강 상담, 정서적 지원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국어 학교: 시드니 한인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학교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학교는 주말에 운영되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수업을 제공한다.
- 문화, 예술, 스포츠: 한국 전통 문화,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함께, 스포츠 팀 및 대회도 운영하고 있다.
-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역 내 다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이민자 창업 지원: 창업을 원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 자금 조달 등을 지원한다.

④ 시드니 사회복지 제도

1) 의료지원: 영주권자인 경우 의료복지 100% 정부지원

- Medicare: 호주 전역에서 시행되는 의료 보험 제도. 건강보험 공사(Health Insurance Commission)가 관리하며, 시드니에서도 모든 시민이 이에 가입할 수 있다.
 - 기본적인 의료 100% 정부지원, 이 외 개인보험 가입시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긴급의료 서비스: 시드니에는 긴급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심장마비나 중증 외상 등 심각한 응급 상황에서는 000으로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호출할 수 있다.
- 시드니 대학병원: 시드니 대학교와 함께 운영되는 대형 의료 기관이다. 시드니 대학교 의학부 학생들이 실습을 하며,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보건소: 시드니의 각 구청에서는 보건소가 운영된다.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 성병검사, 건강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정신건강 지원: 시드니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도 제공된다. 정신건강 클리닉, 상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 이민자를 위한 제도

- 정착 지원 서비스: 이민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 취업 지원 서비스: 이민자가 취업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직 지원, 이력서 작성 및 기술 구축 프로그램이 있다.
- 주택 지원 서비스: 신규 이민자가 시드니에서 적합한 숙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육 지원 서비스: 교육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으로서 언어 교육, 자격 평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 건강 지원 서비스: Medicare, 건강 센터 및 병원 이용을 포함하여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에는 예방 치료 및 정신 건강 서비스가 있다.

3) 출산정책

- 출산정책은 크게 출산 전, 출산 후로 크게 나뉘며 단계별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세부적으로, 신생아나 최근 입양된 아동의 1차 보호자를 돕기 위해 Parental Leave Pay를 제공한다.
최장 18주 동안 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면, 본 지원금은 12주 연속 기간과 30일 유연 휴가일로 구성된다. 유급휴가나 무급휴가와 동시에 Parental Leave Pay를 받을 수 있다. Services Australia는 또는 Dad and Partner Pay를 제공하는데, 이 지원금은 최장 2주 동안 지급되며 부모가 휴가를 내고 새 자녀를 돌보도록 도와준다.

- 현재 선거공약으로 출산부터 학교 입학까지 모든 육아지출 부담금 무료, 산후조리원 퇴소 후 자택 복귀시 일정기간 무료 보모서비스 등을 내세우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호주 또한 출산율의 하락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자녀 연령대별로 지원 프로그램이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고, 직장복귀 지원 프로그램, 의료복지 프로그램, 각종 보조금 지원, 육아분담 프로그램 등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지원해 주고 있다.

4) 그 외 사회복지제도

- 재정지원: 빈곤층 및 긴급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 보조금, 주거 보조금, 식료품 쿠폰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 법률 상담 지원: 시드니에는 법률 상담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료 법률 상담, 법적 지원, 법률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호주는 출산, 생활환경, 노후, 직업, 교육, 의료 등 각 분야별로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에 충실히 하고 있다.

5) 출산지원 등 정책 제언

- 모국인 한국의 출산율이 0.78명대로 저조한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하며, 앞으로 호주처럼 국가의 기본인 인구증가 대책으로 호주의 이민정책을 기본으로 해서 다문화 이민정책 추진 제안과 출산장려책을 단순 예산지원이 아닌 출산 후 보육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호주이민 2-3세의 경우 호주를 자신의 국가로 당연히 인정하고 한국을 부모의 모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호주 국민의 경우 각종 법규 위반에 대한 과도한 벌금 또는 과태료를 인정하는 것은 호주 교육으로 인한 당연한 효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자신이 지키는 법규에 대하여 미준수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야된다는 의식을 당연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거때 무투표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⑤ 방문사진



한인회 방문 사진



한인회 방문 사진



면담 사진



면담 사진

6) 참고문헌: 호주시드니한인회(<http://sydneyhanin.korean.net/>)

○ 박병률 의장

이번 연수를 떠나기 이전에는 호주와 시드니라는 도시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었으나 연수를 준비하고 여러 일정을 소화하며 느낀 점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자면 시드니는 항구도시로 우리 강서구와 많이 닮아있고, 앞으로 닮아가야 할 부분이 많은 도시이며, 우리 구의 발전방향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곳이다. 우선, 항만 재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및 지역특성화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 달링하버에 방문하였다. 달링하버는 시드니 대표적인 명소로 노후화되어있던 선박 터미널을 보수하여 레스토랑, 박물관, 전시장, 컨벤션센터, 수족관의 복합시설들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공원도 함께 아우러져 있다. 또한 달링하버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존재하여 달링하버에서 보고 먹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크루즈 여행 등을 통해 시드니 바다를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예전의 상업항의 중심지에서 현재의 공공성을 지닌 곳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달링하버 건설 특별위원회, 달링하버 항만청 법을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지금은 모두가 사랑하는 장소로 변모한 것을 알 수 있다. 수변경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망 사유화 방지, 스카이라인 차이 지양, 건축물 건설 시 주변 경관과의 어우러짐 중시 등의 노력으로 오늘날 경관이 아름다운 장소가 되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활동을 하며 새겨야 할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의 경제적 이익보단 도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리며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은 마땅히 본받아야 할 것이며, 단순히 경관만 아름다운 곳이 아닌 산책로, 보행자를 먼저 생각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시설 개발 또한 향후 공공시설 조성을

위해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할 중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연수를 진행하는 동안 이곳을 산책하는 시민들을 많이 보았고 산책로를 따라 형성된 음식점, 영화관 등의 상업시설과 공원 등 녹지공간을 즐기는 관광객들을 보며 여유로움과 낭만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액티비티, 최적의 축제·행사 장소로 개발된 달링하버를 통해 앞으로 강서구가 추진해야 할 개발의 방향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곳이었다.

시드니 하면 누구든지 가장 최고로 손꼽을 관광지는 아마도

‘오페라 하우스’ 일 것이다. 이번 연수에 많은 문화 관광시설들을 견학하였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해양자원을 활용한 오페라 하우스 건축물의 웅장함 속의 섬세함에 놀랐으며, 내부시설과 알찬 프로그램 구성, 주변 환경과의 어우러짐 역시 돋보였다. 또한, 오페라 하우스는 홀로 서 있는 건물 자체로도 아름다웠지만, 하버브릿지, 왕립박물관, 서큘라키 등 여러 장소와도 이질감 없이 조화롭게 빛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관광, 문화, 휴식의 공간이 모두 완벽히 갖춰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낮의 모습과 밤의 모습이

다르지만 둘 다 매우 아름다운 장소로 다가왔다. 오페라하우스에서 서큘라키까지 이어져있는 오페라 바는 관광객들에게 낮에는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있었고, 저녁에는 낮과는 달리 신나는 분위기로 변하여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시드니시의 공무원,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이러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AI를 기반으로한 오페라하우스 프로그램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화,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시 방문한 이에게도 새로움을 선사할 수 있는 다채로움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우리 강서구의 명지국제신도시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아트홀 사업의 방향성과 완공된 후 운영의 방향성까지 미리 머릿속으로 그려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오페라 하우스와 맞먹는 시드니의 랜드마크 중 하나로 하버브릿지가 있다. 하버브릿지는 건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아치형 철교였다고 한다. 하버브릿지는 건설 당시 기술적인 제한과 경제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건설에 대한 열정과 열망으로 8년간에 걸쳐 완공된 세계에서 가장 큰 아치형 철교였다고 한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건설 당시부터 다리의 기능성 뿐만 아니라 앞으로 100년 미래까지 내다보고 건설되어 현재 시드니를 대표하는 상징성과 관광성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관광 상품으로서 하버브릿지를 통과할 수 있는 크루즈선이 있으며, 크루즈를 타고 시드니 대표관광명소 오페라하우스, 달링하버, 로얄보타닉가든 등의 전망을 감상하며 시드니 바다를 느낄 수 있다.

이는 부산의 북항대교와 비교해볼 수 있다. 북항대교는 건설 당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예측이 미흡하여 현재 고도제한으로 인해 대형 크루즈는 이동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시드니시의 이러한 미래반영계획, 즉 시간을 들여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반영한 후 사업이 진행되는 점은 우리가 분명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현재 하버브릿지는 시드니 항구를 가로지르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등이 이동이 가능하고 ‘브릿지 클라임 시드니’라는 체험형 관광상품을 통해 하버브릿지 경관 산책도 가능하다는 점도 인상깊었다. 일몰시간부터 저녁시간까지 다양한 시간대로 운영하고 있지만 인기가 많아 미리 예약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며, 체험하며 시드니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렇듯 시드니는 몇몇 도시들처럼 단순히 랜드마크 건물만 덩그러니 세워놓고 그 건물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명소 하

나하나에 이색적인 프로그램과 스토리를 더하여, 보고 체험하며 느끼게하는 요소들로 가득하여 우리들에게 식사하다거나 단순하다는 느낌을 받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었다. 향후 강서구에 건립될 문화관광복합시설, 사회기반시설, 문화관광상품 등을 이같이 다채로운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심공원화 정책사업을 배우기 위해 왕립 박물관, 미시즈매쿼리포인트, 더들리페이지 등을 방문하였다. 호주는 공원 내 취사, 취식이 금지였고 쓰레기통이 곳곳에 비치되어 있어 대체적으로 방문지에서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이 깨끗하게 공간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는 시드니 시민들이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여러 제도와 시설의 보완으로 도시의 미관을 확보하는 선진적인 도시 관리 시스템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이 큰 시드니답게 역사가 깃든 나무, 식물들이 공원, 도시와 모두 잘 공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안내판 등을 통해 역사와 식물들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였다. 미시매쿼리포인트, 더들리페이지 등은 시드니의 아름다운 전경을 볼 수 있는 장소였고 그 장소에서 시드니를 바라보는 것도 아름다웠지만, 이러한 공간 자체가 관리가 잘 되어있고 관광객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 구도 시드니처럼 관광지 각각의 다채로운 특색을 살리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관람객들의 편의와 청결한 도시미관을 위해 관리를 위한 조례안 등 여러 제도를 보완하고 청결을 위한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해봐야할 시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시드니시의 자연경관이 유지가 잘 되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시드니의 생활규범을 어길시 부과되는 엄격한 과태료 규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드니시는 크게 속도 제한 초과 및 안전벨트 미

착용 등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길거리 흡연,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쓰레기 처리 위반 등에 적용되는 환경보호법 위반, 음식점 미위생 상태, 무면허 건강보험 서비스 제공 등에 적용되는 건강보호법 위반, 불법 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 등에 적용되는 도시계획법 위반 등의 사유로 과태료 규정이 존재하며, 이 외에도 무투표시, 소음 규정 위반 및 교통위반시 과도한 과태료 부과를 함으로써 위배되는 생활규범을 엄격히 관리하여 도시·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환경 문제로 민원이 많은 우리구에도 규범을 준수하는 시민과 위배하는 시민의 차별을 둘수 있는 적절한 과태료 부과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도 필요한 것 같다.

또한, 시드니처럼 선진화된 도시의 대중교통은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통의 요충지라는 센트럴시티역에 방문하였다. 센트럴시티역은 시드니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시드니 내에서 어느 장소를 가든 트램, 전철, 버스 이용이 가능하였으며, 전자화된 차편 시간표를 활용하여 시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착화된 환승시스템은 항구도시인 시드니 내에서 차편과 배편을 모두 활용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으며, 단순히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지하화 도로, 무인 메트로 등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인 대중교통망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단-녹산선의 조기 착공과, 센트럴시티역과 같은 복합환승센터 건설 등 대중교통의 음영지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겠다고 생각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취업 및 고용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시드니는 이

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정책, 즉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민자들에게 취업, 주거, 교육, 건강, 문화 등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이민자들이 낯선 타국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로 인해 이민자들이 거주하면서 점점 시드니를 자국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놀라웠으며, 시드니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

우리구도 시드니의 다문화 지원정책에서 배울 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우리구에 거주하는 이민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지원사업을 통해 강서구의 저출산, 고령화, 취업 및 고용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김주홍 부의장

호주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많고 병을 치료하기보다 이를 예방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의 장기비전을 가지고 100년이 지난 미래에도 지속·활용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와는 대조적으로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간다. 민원 대응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신속하지 못한 업무 처리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부작용도 있지만, 장기 계획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에는 꼭 필요한 마인드라고 생각한다.

시드니는 블랙타운 시티를 중심으로 40년(2056년까지) 비전의 ‘그레이터 시드니 지역 계획’을 세웠다. 주민들이 직장, 교육 및 의료 시설 등의 장소를 3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블랙타운 시티(Blacktown City), 센트럴리버 시티(Central River City)와 웨스턴파크랜드 시티(Western Parkland City) 3개 도시를 하나로 묶는 비전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 네트워크를 지원하려 노력하고 있다. 주택 전략과 교통 정책이 필요하다. 철도 등 적절한 교통수단을 통해 밀도를 조정한다. 성장은 한곳에 집중시키고 집중된 곳으로 접근하는 교통망을 정비해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오토바이, 도보 등 여러 가지 옵션으로 누구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외지역에 주택을 보급하여 인구 과잉을 막고 있다.

이 모습은 사실 우리 강서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부산광역시에서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15분 도시, 경남과 동부 산권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공항 사업, 남북을 잇는 도

로개설 사업 등 많은 정책들을 우리도 펼치고 있다.

대중교통 실태분석 및 버스 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저대교 등 낙동강 횡단교량의 조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낙동강 인근 지자체들과 낙동강협의를체를 구성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현안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도시철도 하단·녹산선을 비롯해 가덕신공항,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를 구축하여 글로벌 혁신도시 실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시드니의 여러 가지 성공사례를 미루어 보아 100년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혜안으로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우리의 장점에 더해 더욱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강서구가 될 것이다.

○ 박혜자 의원

흔히 호주를 천혜의 자원을 보유한 선진국으로, 시드니 공항에 내리는 순간 만나는 하늘 빛깔부터가 한국과는 다른 파랑이더라고 말한다.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무엇이 그 아름다움을 만드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유칼립투스 나무로 가득한 블루마운틴 공원을 비롯한 축복받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경관도 내게 깊은 인상으로 남았지만, 호주의 저력을 느낀 부분은 역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였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리지 그리고 보고서 주제였던 달링하버에 이르기까지 타고난 자연경관을 관광자원화 하는 과정에서 탁월함을 빛내는 건 결국 행정의 처리 방식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호주만이 탁월한 자연경관 자원을 가져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능성과 사례들을 검토하여 호주에 최적화된 방식을 찾고 최초 목적을 관철한 결과가 오늘날 호주 시드니 방문자들이 마주하는 국가적인 자원이 된 것이다. 이는 우리가 방문했던 시드니 올림픽파크, 블랙타운 시티, 센트럴 시티 등의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공통된 사항이었다. 공공시설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잡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잘 갖추어진 주민편의시설 등 우리 구 행정에 도입할 수 있는 개별 인프라가 많지만, 시급히 필요한 건 정책에 대한 접근법과 추진 방식이라는 짧은 소회를 끝으로 연수 후기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이자연 의원

달링하버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아직 여름인데도 습하지도 않고 화창한 날씨 때문이랄까? 무척 상쾌했다. 또 한국의 바닷가에서 쉽게 맞을 수 있는 특유의 짠 냄새가 나지 않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수산업 관련해서는 이 지역에 없어 생물의 부패한 냄새가 소금기 섞인 바닷물과 같이 나지 않은 것이었다. 처음에 도착했을 때 여기가 항구인지 관광지인지 높은 빌딩으로 둘러싸인 상업지구인지 주거지역인지 그리고 휴식 공간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았다. 가이드의 설명과 보고서를 위한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난 후 그러한 이유를 알 수가 있었다. 사람 중심으로 하여 도시가 가져야 할 기능적인 모든 것이 항만과 더불어 있는 곳, 달링하버, 오페라 하우스, 하버 브릿지등 시드니를 대표하는 상징물과 함께 주변의 노천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 사람들을 쉴새 없이 실어 나르는 페리선들, 그리고 페리에 내려서 바로 도심과 연결되는 지상의 트램등 육상과 해상이 환승 연결되는 대중교통 시스템. 휴식공간과 도시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느낌이 좋았다. 항만을 둘러싼 빌딩들도 경관을 고려해서 계단식으로 들어서 있었고 새로 짓는 현대식 건물들도 기존의 것들과 어울렸다. 하나의 빌딩이 건축 중에 있었는데 꼭대기에서 작업하고 있는 크레인을 보지 않았다면 지금 짓고 있는 것도 모를 정도로 안전과 미관을 고려하여 진행 중에 있었다. 주말 저녁부터 달링하버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한껏 멋을 낸 젊은 남녀들과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오페라하우스 앞 친수공간에 삼삼오오 모여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으며 해상에는 요트들이 모여들고 야외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을 관람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쁜 도시의 일상에서 돌아와 멀리 떠나지 않아도 같은 곳에서 여유를 느끼면서 휴식과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주먹구구식 개발이 아

닌 지역 특성에 맞게 미래를 내다보고 체계적인 개발로 사람 친화적인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원래 있던 자연 환경 뿐만 아니라 새로 만들어낸 시설물들이 주변과 어우러지고 도시의 기능도 살리고 여유도 즐기는 공간이 만들어 졌다. 넓은 땅에서 나는 풍부한 자원을 동력으로 하여 기존 선진국의 기술을 접목하고 더 개발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복합적으로 개발된 달링하버, 여기서 우리 강서구에 적용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연수를 진행하였다. 비록 자연환경이나 지역 특성이 강서구와 많이 다르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친수공간을 활용하는 점에서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어차피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는 그 교통, 직장, 휴식 공간, 자연환경, 주거공간이 잘 어우러져야 하기에 평지와 자연 하천, 그리고 해안과 맞물려 있는 강서구는 지금은 최첨단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지만 기존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관광객들과 주민과 그리고 기존의 어촌마을과 같이 연계되는 새로운 주거 도시로 나아가야겠다.

○ 김정용 의원

이번 연수를 통해 느낀점은 시드니란 도시가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호주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에 시간에 쫓겨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 모든 가능성과 해외선진사례를 검토한 후 호주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행정을 처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점은 우리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여겨졌다. 작년에 부산시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폭우 시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시드니 도심 내 곳곳에 하수처리시설 배수구가 아래 사진처럼 되어 있어 집중호우 및 폭우로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하여 침수에 대한 안전대책이 도시 곳곳에 반영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이러한 점은 우리구도 적절하게 도입하여 추진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교통체증은 모든 도시의 문제점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드니는 꾸준히 지하화도로를 건설하였고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정책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구도 출퇴근시간 교통체증 문제로 다람쥐버스운행, 도시철도, 트램 등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접근성과 관광성, 편리성, 효율성을 갖춘 역사, 특색 있는 교통수단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구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시드니처럼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를 급하게 하나씩 처리하기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전체를 보고 접근을 해야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환골탈태한 시드니 올림픽 파크는 많은 쓰레기 매립장을 안고 있는 우리구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공원의 보여지는 외관뿐 아니라 스마트 기반시설을 통해 친환경 정책을 구축하고 있는 점, 시민들이 이용시설이 체육시설, 공연, 문화뿐 아니라 바비큐장, 캠핑장 등의 시설을 지니고 있는점,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시드니시의 노력을 엿 볼 수 있었으며 앞으로 우리구 매립지가 이전되면, 그 장소를 어떻게 활용하며, 활용하는 장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시드니 랜드마크, 축제·행사 공간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드니시의 노력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전방안은 우리구도 배워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든다.

이뿐만 아니라 해양시설의 발전과정과 편의성, medi care라는 카드를 통한 시드니 시민들을 위한 의료복지정책,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보모지원을 통한 육아분담 등 향후의 시드니시 정책방향은 앞으로 우리구 의료·출산정책에 맞춰 어떻게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구정란 의원

시드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문화관광” 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많은 해외를 다녀 보았지만, 시드니는 도시 전체적인 느낌이 “깔끔함” 과 “조화” 였다. 곳곳의 건물들이 건립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승 유지되어 온 전통문화유산으로서 관광지였으며, 어디를 가나 자연친화적이며, 아름답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큰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호주는 인프라가 모두 구축된 상태에서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설계한 후 건물을 짓는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인지 도시가 전체적으로 안정감있고 아름다우며 그 아름다움이 랜드마크 하나하나 조화가 잘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방문하였던 더들리페이지, 서큘라퀘이, 미시즈매쿼리 포인트, 왕립 박물관 등 자연을 그대로 보존한 자연친화적 공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공원 내 취사, 취식이 금지되어 있어서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었고 쓰레기통도 곳곳에 구비되어 있어 깨끗한 공원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다. 자연을 중시하는 시민의식 역시 시드니의 녹지를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도 하게되었다. 특히 본인의 정원에 나무를 심는 것은 자유이지만 마음대로 베어내지는 못한다는 말에 녹지에 대한 정책이 국민 모두의 합의 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립박물관에서는 아름다운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박물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투어를 할 수 있었으며, 운영 프로그램이 많아 역사, 문화, 예술, 과학, 자연 등 다양한 주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향후 우리 구에 지어질 문화복합시설 등에도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구민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만족도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봐야겠

다는 생각을 하였다.

시드니는 경관뿐 아니라 친환경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마트기반시설을 통해 친환경 정책을 사용하고 있었고, 추후 장기계획에도 이러한 정책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맥도그린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저탄소 스마트녹색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이는 우리구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뿐만 아니라 신도시개발을 함에 있어 스마트 기반 시설은 이제 필수이며, 이러한 노력들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힘써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낙동강 아트홀 등 문화 및 체육시설 건립을 통해 구민들의 문화 생활, 여가복지를 충족시켜줄 수 있겠지만 문화관광적 측면에서도 특색 있는 공간, 우리구 만의 지역특산품 홍보 연계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강서구를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 예정 되어 있는 명지신도시2단계의 경우 랜드마크타워부지도 마련되어 있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건립하여, 이런 랜드마크 건축물을 통해 강서구가 살기 좋은 강서뿐만 아니라 관광과 테마가 다양한 놀거리, 볼거리가 많은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리고 시드니의 “깔끔함”과 “전통과 자연과의 조화”를 본받아 앞으로 개발·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우리 강서구도 누구나 오고 싶고, 와서도 만족할 수 있는 문화관광 도시, 주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켜 누구나 살고 싶은 강서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